

2024 년 12 월 31 일 “(송구영신예배)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히 12:1-2)

하나님은 고난을 미래의 유익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나에게서는 참 생명의 방식을 붙드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장(성화)의 축복을 얻습니다.

[1] 상처와 아픔을 대처하는 방식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영생)의 속성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창 1:26-27). 영생 안에는 모든 참됨과 선함이 있습니다(사랑, 공휼, 자비, 용서, 인내 등...)

사람 안에 담긴 영생의 특징:

- (1) 성장합니다. 예: 사랑의 성장
- (2)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로부터 방어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 자기를 강화하는 인위적 차원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얻는 능력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닥쳐도 짧은 시간이라도 내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성품), 태도, 말, 방식 등을 배우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의미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2] 왜 성품과 안목의 성장이 일어나야 하는가?

한 해의 결실을 어디서 찾으며 새해의 희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 (1) 성장이 멈추면 퇴행하기 때문입니다(유치 퇴행(childish regression)). 예수님께 배우다 보면 세속적 꾀와 술수에 동일하게 응대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길을 가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 (2)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라는 큰 그릇 속에 하나님의 하늘의 유산을 담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유업(몹)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참 축복입니다.

우리가 맡아서 하는 일의 성과도 중요하고, 타인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나는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확신하며 얻을 수 있는 하늘의 유업의 축복은 더욱 중요합니다.

25년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말이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 1. 나는 어떤 면에서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신의 성품 중 하나를 예로 말씀해 보세요.
- 2.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성경 말씀이 내 삶에서 왜 중요합니까? 위 내용을 참고하여 생각해 보세요.